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해도 안 돼서 올라온 것’이라고 판사에게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는 이걸 발판으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뉴저지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일본계 학교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렇게 미국 내에서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으로 쓰여진 교과서로 배우는 것만큼은 막고 싶다.

» 김용환 미국 언론에서 자칫 독도를 두고 한·일 간 영토분쟁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면 우리로서는 그만큼 손해다. 일본의 노림수가 어찌면 그와 같은 이슈화 자체가 목적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 학교에서 그같은 교육을 하도록 지켜만 보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내 여론과 언론의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 김봉준 워낙 개인적인 소송이고 조용히 진행해서 여론의 관심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로펌 ‘김&배’는 그동안 논란이 많은 사건들을 맡아왔고 힘든 싸움을 해서 이겨왔다. 그래서 미국 언론 쪽에도 꽤 알려진 편이다. ‘김&배’에서 이런 소송을 진행한다는 걸 알고 미국 미디어 쪽에서 연락이 왔다. 지금까지는 인터뷰를 거절해왔는데 추측성 기사를 막기 위해서 소송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개할 생각도 있다.

교과서 문제로 접근했지만 일단 공개된 이상 독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쪽에서 최소화하고는 있지만 독도 문제로 보려는 여론과 언론의 시선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정확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 김용환 이번 소송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은 역시 일본일 것이다. 일본 측으로부터 연락이나 접촉이 시도된 적이 있는지?

» 김봉준 산케이 신문 측에서 연락이 왔다. 끈질기게 접촉을 시도해 워싱턴 특파원과 잠깐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기자에게 이건 독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학교 문제라는 걸 분명히 말했다. 기자가 “이 다음 단계는 뭐냐”고 물어서 “우리는 다음 단계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인으로서 학교의 가르침이 편향된 정치적인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이다”라고 답했다. 그랬더니 다시 기자가 “거긴 일본 학교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래서 “미국인이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깨끗하고 공정하게 해놓아야지 좋을 거 같아서 결심한 일이다”라고 답했다.

» 김용환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산케이 신문에서 관련 기사가 났다. 산케이는 이번 사건을 반일 프로파간다(선전)로 간주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그 교과서를 세계 각국 일본인 학교에서 사용 중이어서 다른 학교에 대한 영향도 우려된다고 한다. 아마도 이번 소송의 결과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향후 소송 준비를 포함해 재단에 바라는 점은?

» 김봉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독도관련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들이 필수적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영문 자료를 제공해줬으면 한다.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본 측 논리에 기댄 지식들이 보편적이다. 그래서 “독도가 일본 것이라면 왜 거기에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것만 봐도 너희 교과서와 현 상황은 모순이다. 그러니 그런 모순된 상황은 교과서에 담지 말아라” 이렇게 반박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그들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려면 논리적인 서류들이 필요하다. ☞